| 현불 논단 |

시대 맞는 불교출판 절실하다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

문체부 조사서 독서율 첫 50%
지속적 감소… 일 · 학업이 이유

불자 독서율은 '비상등' 인 상황
불교인구마저 줄어 더욱 암담해
학술 · 문화 전반에 영향 미칠 것

e-북 이용 증가, 전자 출판 고려
시대 · 세대 맞춤형 佛書 발간해야
사찰별 도서관 운영도 확대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에 의하면 성인들의 연간 도서 구입량은 4.1권이며, 독서율은 59.9%(2016년 65.3%)이다. 그리고 선호분야는 '문학' (23.7%), '장르소설' (13.0%), '취미 · 여행 · 건강' (10.9%), '철학 · 사상 · 종교' (10.3%)의 순이다. 이 조사에서 '한국인의 책 읽기' 가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서 구입과 독서율이 해년마다 줄어드는 큰 이유로서는 '일과 학업이 바빠서' 이다. 직장인들은 업무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입시와 스펙 쌓기, 취업준비 때문이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초고속인터넷에 의해 언제든지 다양한 정보 검색이 가능해지고 흥미로운 여러 텍스트들을 접하게 되면서 독서에 대한 습관과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일반 사회에서는 도서 구입과 독서율이 '경고등' 이 켜졌다고 하지만, 불교계에 있어서 불서 구입과 독서율은 '경고등' 을 지나 '비상등' 이 깜빡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상황은 1998년의 IMF와 함께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 상황을 불교계 관계자들은 방관하지 말고, 직시하고 분석하여 현재와 미래의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불자 수는 현재 761만 명(15.5%, 2005년 1,058만명)이며, 조계종의 경우 출가자수는 연간 500여 명에서 현재는 150여 명 내외로 감소하였다. 즉, 불서를 구입하고 불서를 읽을 사람들이 그 만큼 감소했다는 의미다. 이 불자들 중에서 또한 신도층의 고령화로 인하여 불서 구입과 독서율이 감소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불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불서를 판매?구입하는 일반인들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인하여 '비상등' 이 켜졌다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불교사상, 수행, 문화, 예술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의 부재, 그리고 학술적의 저술과 출판이 안 되어서 한국불교학연구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잡아함경〉에 "과거, 미래는 현재 속에 존재한다"라고 설하고 있다. 이것은 곧 현재 속에 과거와 미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경구에 의하면 한국불교의 불서출판, 문서포교는 과거와 현재가 미약하므로 미래의 불자수, 출가자수, 사회의 신뢰도는 더욱 더 낮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비상등의 상황에서 한국불교 및 출판계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의 도서관에서는 매년 '종이책' 보다 '전자책(e-북)' 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와 세대에 맞게 불서 전자책 출판을 권한다.

또한, 불교출판문화협회에서는 각 지역의 대형서점과 본 · 말사 등을 순회하면서 불서 소개 및 저자들과의 만남 등을 주최하여 다가가고 함께하는 이벤트를 개최하였으면 한다.

불교사상 · 수행 · 명상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 습득, 문서포교, 그리고 평온한 쉼터 및 힐링의 공간으로서 각 사찰마다 하나의 공간을 제공하여 도서관(실)을 운영하였으면 한다.

한정된 경전, 수행, 기도 불서들을 출판하는 것보다도 불교출판문화협회에서는 시대에 맞고, 세대에 맞는 구독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주제와 내용들이 수록된 불서를 출판하였으면 한다.

이와 같은 제안들은 단순하게 불서 출판의 비즈니스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한국불교의 미래, 포교, 지식 · 정보제공, 불교학연구, 그리고 한국인의 마음 평온들을 위함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불교 종단들의 행정적 협조와 불교출판 관계자들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교 및 사회에서 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스님들의 법력에 의한 불서들이다.



특별기고
김광식 동국대 교수

불교, 3 · 1운동 100주년 준비하자

3 · 1절이다. 3 · 1절은 1919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민족이 다 함께 '만세', '대한 독립만세' 를 목청껏 불렀던 역사를 기리는 날이다. 역사적인 그날, 우리 민족은 남녀노소, 종교, 이념 을 넘어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는 정신으로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민족 독립의 당위성을 발표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3 · 1독립선언서였다.

3 · 1운동은 서울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파급되었다. 나아가 중국, 러시아 등의 교포들도 만세를 불렀다. 불교의 스님들도 3 · 1운동에 동참하였다. 민족대표(33인)로 한용운 스님과 백용성 스님이 활동하였고, 한용운 스님은 독립선언서에 3 · 1정신인 공약삼장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동국대 전신인 중앙학림 스님들은 탑골공원에서의 만세시위에 참가한 후, 출신 사찰로 가서 만세운동을 파급시켰다. 그 후 일단의 청년 승려들은 상해 임시정부, 만주 독립군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지속했다.

또 사찰의 스님들은 독립운동에 필요한 군자금을 암암리에 지원했다.

올해로 3 · 1운동이 일어난지 어언 99년이 되었다. 오랜 세월, 각박한 세태, 급격한 서구화로 인해 그동안 3 · 1정신은 퇴색되었다. 불교의 종단, 사찰, 스님, 단체에서 3 · 1정신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99주년 3 · 1절을 맞아 몇가지 내용을 제언한다.

첫째, 태극기를 달자. 태극기는 우리 민족과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이다. 우리의 역사, 정체성이 태극기에 담겨 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의 정신이 태극기에 담겨 있다. 각 가정에 달아야 하겠지만 스님들과 불자들은 사찰에도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둘째, 3 · 1운동 100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자. 내년은 3 · 1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천도교, 기독교는 3 · 1운동 100주년 행사를 5년 전부터 준비했다. 다양한 행사, 자료집 발간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준비 작업이 매우 부진하다. 다행히 조계종단 사회연구소에서 준비를 하고, 최근 일부 성과물이 나왔다. 불교의 저력에 걸맞는 준비를 하자.

셋째, 호국불교와 민족불교를 다시 보자. 한국불교의 정체성은 호국불교, 민족불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외적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서는 스님들이 나섰다. 이는 불교 실천 차원에서, 그리고 공동체(국가) 및 구성원(중생, 대중)을 구제(보호, 수호)하려는 정신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서산대사, 사명당을 구국의 영웅으로 자랑스럽게 기억한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도 한용운, 백용성, 김법린, 백성욱, 최범술 등 많은 스님들이 독립운동 대열에 참가했다. 호국불교의 부정성(권력과 결합)으로 인해 비판을 가한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호국불교와 민족불교의 진정성을 보고 재평가를 하자.

3 · 1정신을 찾지 않으면 불교는 종교라는 울타리에 갇힌다. 그래서 3 · 1정신을 다시 찾아 민족과 나라를 끌어안고 보다 넓은 광장으로 나가자.

社 說

금강대 변화 물결 기대한다

금강대 신임총장에 송희연 前 KDI 원장이 선임됐다. 앞서 한광수 총장의 막말 파문과 이준원 총장의 취임 두 달만의 사임 등으로 오랜 기간 리더의 부재를 겪은 금강대이기에 변화의 물결을 바라는 천태종 안팎의 기대가 높다.

송희연 신임총장이 본지 단독인터뷰서 밝혔듯이 금강대는 현재 위기상황이다. 학제 개편은 1~2년 단위로 이뤄져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고, 지난해 직원들은 총장의 불통과 독단적 운영에 문제제기를 했다. 또 교수협의회는 이 같은 혼란 상황에서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해 금강대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게다가 이 시기는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의 오명을 벗기 위한 준비가 이뤄진 때여서 악재가 겹쳤다. 송 총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송 총장은 금강대의 위기상황을 감추지 않았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구성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병은 알려야 빨리 낫는다' 는 그의 지론은 더 이상 부끄러움에 움츠러들지 말고, 현실을 인지해 개선하자는 구성원 독려로 읽힌다.

15년 전, 금강대는 전액장학금 지원과 해외연수 등 파격적인 장학제도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당시 파격적이었던 혜택은 더 이상 파격적이지 못한, 조금은 흔해진 제도가 됐다. 학령인구의 급감을 감안하면 학교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강대는 학생 개개인부터 직원, 교수까지 모두가 기관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는 송 총장의 역설을 귀담아 듣길 바란다. 빠르지 않더라도 한걸음씩 옛 위상을 되찾아가는 지혜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불교웹툰 증가, 이젠 플랫폼 개발을

최근 불교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웹툰이 선보이고 있다. 영광군은 2월 18일 영광의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불갑사 등을 주제로한 웹툰을 공개했다.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영광의 문화를 소개하는 웹툰이지만 불교문화를 알리는데도 활용가능하단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은평구청도 3.1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의 활동을 거장 이현세 작가와 함께 웹툰으로 그려 공개한다.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조계종 포교원 또한 포교 전법 차원에서 올해 웹툰 작가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웹툰과 게임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불교문화를 활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를 담아내는 플랫폼이 불교계에 없다는 점이다.

가령 불교 웹툰을 그려낸다고 하더라도,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이나 전문웹툰 사이트를 뚫을 수 밖에 없다. 영리적인 목적을 하는 플랫폼에서 종교적인 웹툰이 자리잡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기독교계는 이미 '갓피플' '다이아툰' 등 기독교 소재를 활용한 웹툰을 게재하는 플랫폼이 마련돼 있다. 웹툰 뿐만 아니라 이모티콘, 그래픽 등도 쉽게 구할 수 있다.

현재 스마트폰 보급이 애플의 앱스토어 플랫폼에 자유로운 앱개발자들이 앱을 등록하면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불교 웹툰 개발 뿐만 아니라 웹툰을 대중들에게 전하는 플랫폼에도 이제는 불교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불교 웹툰이 나오기 위해서, 또 불교문화콘텐츠 발달을 위해 플랫폼 개발에 나서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